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교구청 성직자 모지
사진 _ 홍창익 빅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5-30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무더기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택하셔서 신앙을 갖게 해 주신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빈 말을 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지혜 3,1-9

제2독서 로마 5,17-21

복음 마태 11,25-30

입당송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화답송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영성체송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박영일 바오로 신부 | 교구 사목국장

개신교가 저버린 보화 하나 - 연옥(煉獄)교리

우리 교회는 어제 모든 성인의 날을 지냈고, 오늘은 위령의 날을 지냅니다. 그 이유는 '통공' 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서 통공은 산 이가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죽은 이가 산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이와 죽은 이의 경계 없이 기도하는 것이 모든 성인의 날과 위령의 날의 취지입니다.

얼마 전에 50년을 개신교에서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 개종하신 분이 쓴 『개신교가 저버린 보화들』(임승만 안토니오, 좋은땅, 2014)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 이후의 교리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고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굳은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는 연옥교리나 통공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개신교에서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맙니다. 따라서 추모예배를 하지만 이는 산 자들을 위한 기념예배인 것이며,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며 죽은 이들에게 불필요하고 전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로서 그리고 부모님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터에 가톨릭의 '연옥' 교리와 '통공'교리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개종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연옥(煉獄: Purgatorium)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카베오 12,41-45 참조) 그래서 대죄(大罪)를 지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지만, 대죄를 모르고 저지른 영혼이나, 소죄(小罪)를 지은 영혼들은 연옥에서 잠벌(暫罰)의 정화과정을 통해서 정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잠벌(暫罰: Poena temporalis)이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 당하는 벌, 즉 연옥에서 잠시 받는 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잠벌은 남아서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들이 아직도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연옥영혼을 위한 이러한 미사나 기도는 그 분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무서운 대죄를 미워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속을 위한 회생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도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행히도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산 이와 죽은 이들 모두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필문**

위령성월 특집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는 신앙고백 - 연도

천주교 신자의 장례식장에는 으레 연도(煉禱)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빈소에 오신 신자 분들(특히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은 두 패로 나눠 시편 기도를 주고받습니다. 시편 구절이 서로 오갈 때, 그것을 그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창을 하듯 구성진 가락으로 읊어 나갑니다. 슬픔에 빠진 상주는 물론 비신자 문상객들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연도의 가락에 마음을 실어 슬픔을 달래며 망자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한국의 천주교는 이처럼 연도를 통해 타 종교와는 다른 형식의 장례 풍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봉사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곁을 지켜주고 그들을 돕는 봉사 행위도 되는 연도를 경험하고, 그 봉사에 매료되어 가톨릭 신앙을 찾게 된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도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뜻의 독특한 기도 방식으로 요즈음에는 ‘위령 기도’라고도 부르지만, 여전히 ‘연도’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그 유래가 박해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교문화가 뿌리깊이 정착된 당시 조선사회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효과 대치되는 것이었지만 죽은 이를 위한 기도인 연도는 이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돌파구였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기도서에 해당하는 「천주성교공과」에 연도의 내용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 교회의 첫 상장례 예식서인 「천주성교예규」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시편 129편과 50편, 성인호칭기도, 찬미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도는 본래 성직자 수도자들이 바치는 위령 성무일도에서 시편의 선택과 기도문들이 유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문에 화음이 들어가지 않은 단성의 가락을 붙여 창을 하듯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외래 전통을 우리 문화 안에 받아들이며 만들어낸 독특한 예식으로 한국 가톨릭 종교문화 가운데 가장 자연스럽게 토착화를 이룬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연도는 초기에는 각 교구마다 연도문이 달라서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1991년 처음으로 오선악보에 채록됐고 2003년 주교회의에서 상장예식을 마련하면서 전국이 같은 가락으로 연도를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성교예규」에 “연도는 첫째로 노래하는 소리로서 내 생각을 들어 주께 향하게 하여 내 마음을 수렴하게 하고 더욱 구원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슬픔은 희망 없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기 때문”에 노래로 연도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활신앙으로 들어 올리고, 공동체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신을 이어가는 행위의 하나로 높은 전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 기간이나 기일에만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성찰과 회개, 연옥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봉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도라 하겠습니다. **▶**

사목단상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박성대 요한 신부 | 2대리구 교구장대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을 느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승객들의 생명은 팽개치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졸렬한 모습을 보면서 설령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육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토록 비겁하게 구걸하는 인생은 참으로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님께서는 선풍적인 ‘프란치스코 효과’, 혹은 ‘포프 신드롬’을 남기셨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큰 대목을 누리고 있다. 많은 냉담자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예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다는 즐거운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매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너무나 많은 그분의 언행이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특별히 필자의 마음을 매료시킨 가장 매력적인 말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처럼 공개된 공적인 행사에서 역대 교황님들께서 당연하게 사용하셨던 방탄차를 사양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테러를 각오한 과감한 행보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죄 집단인 마피아에 대하여

파문을 선언하면서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있겠는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하느님의 나라는 운(運)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많은 신자들이 장수를 누리다가 병자성사를 잘 받고 선종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복(?)을 누리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 이런 행운이나 복을 누리 못하는 운이 나쁜(?) 사람도 많다. 하느님의 나라는 운이 좋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수를 누리시다 자연사(自然死)하신 분이 아니시다. 속된 말로 33세의 나이로 비명횡사(非命橫死)하신 분이시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24위의 복자와 103위의 순교 성인들을 모시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분들도 예수님처럼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해 비명횡사하신 분들이다. 결코 운이 좋은 분들이 아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운과는 거리가 먼 분들이다.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사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사제다운 사제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싶다. **필문**

빈손



알렉산더 대왕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왕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름난 명의들이 수없이 왔다 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허둥대는 주변 사람들과는 달리 알렉산더 대왕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조금씩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죽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신하들이 자리에 누워 쉴 것을 권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사람은 죽으면 잠을 자게 되는 법. 살아 눈 뜨고 있는 이 순간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보내리라.”

그러던 알렉산더 대왕도 병이 점점 더 깊어지자 자리에 앉아있을 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미 병색이 짙은 그를 포기한 상태

라 ‘그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일까?’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사경을 헤매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은 좀처럼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어 띄엄띄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문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초조하게 그의 유언을 기다리던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왕의 유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뿐이요.” **골로**

금주의 성인

11월 2일	성 빅토리노(주교, 수사학자, 순교자, 페타우, 304년경)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수사, 1579~1639년), 성 말라키아 오모르(주교, 아마, 1095~1148년) 성녀 베네프리다(수녀원장, 동정 순교자, 650년경), 성 아미코(은수자, 몬테카시노, 1045년) 성 후베르트(주교, 리에주, 650~727년)
11월 4일	성 가롤로 보로메오(추기경, 밀라노, 1538~1584년), 성 니칸테르(주교, 순교자) 성 비탈리스(순교자, 304년), 성 아그리콜라(순교자, 304년) 성 에메리코(왕자, 헝가리, 1007~1031년), 성 피에리오(신부, 알렉산드리아 310년)
11월 5일	성녀 베르틸라(수녀원장, 셀레, 705년경), 성 즈카르야(신약인물, 예언자, 사제, 1세기경)
11월 6일	성 데메트리아(주교, 키프로스, 912년), 성 레오나르도(은수자, 수도원장, 노블락, 559년) 성 바를라암(수도원장, 쿠티, 1193년), 성 일투드(수도원장, 450~535년)
11월 7일	성 엔젤베르토(주교, 순교자, 쾰른, 1187~1225년), 성 플로렌시오(주교, 스트라스부르, 693년) 성 빌리브로르도(선교사, 주교, 에히티나흐, 658~739년), 성 헤르쿨라노(주교, 페루자, 547년경)
11월 8일	성 고데프리도(주교, 아미앵, 1070~1115년), 성 데우스테디트(교황, 618년) 성 마우로(주교, 베르됭, 383년), 성 클라로(신부, 은수자, 마르투이에, 397년) 성 키비(수도원장, 6세기경), 성 티실리오(수도원장, 웨일스, 7세기경)

■ 제4회 안중근 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교구 총대리 하성호(사도요한) 신부님께서는 10월 24일(금) 오후 1시 CU테크노센터 301호에서 열린 제4회 안중근 연구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교구장 대주교님의 축사를 대독하셨다.

■ 성요셉복지재단 법인인수 25주년 기념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고령군 대가야 국악당에서 관계자 400여명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성요셉복지재단 법인인수 25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셨다.

■ 구평성당 성전봉헌미사



대주교님께서는 10월 26일(일) 오후 3시 구평성당에서 제대를 축성하시고 성전봉헌미사를 봉헌하셨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3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3일(월) 19:30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11월 3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료교육관 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22(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강대학교 옆)
 주제: 서원의 삶: 가난, 정결, 순명
 문의: (010)6483-4008
<http://cafe.daum.net/vocsj>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5(금) 17:30~7(일)
 4박 5일: 11.17(월) 14:00~21(금)
 8박 9일: 11.24(월) 14:00~12.2(화)
 에니어그램: 11.6(목) 15:00~8(토)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1.7(금) 18:00~9(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제주 자연 피정

기간: 12.1~4 / 12.31~1.3 / 1.5~8
 1.18~21 / 2.1~4 / 2.25~28
 문의: 성이시돌피정센터, (02)773-1455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자와 함께하는 평화, 성지순례,

매일미사, 올레길, 오름 트레킹, 관광
 일시: 11.24~26 / 12.13~15 / 1.10~12
 1.25~27 / 2.5~7 / 2.27~3.1
 문의: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02)773-1463

이해인수녀·이봉희교수 문학 치유 피정

기간: 12.11(목)~13(토)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동반: 이해인 수녀, 이봉희 교수
 회비: 16만 원(선착순 90명)
 신청: (051)753-5744 / (010)7720-5744

최봉도 신부 지도 희망기도 피정

기간: 12.18(목) 14:00~21(일) 13:00
 장소: 의정부 민족화해센터
 신청: 전선자, (010)6254-0057

교육 | 모집

Show Bible · 영화 속 우리 이야기

Show Bible: 11.4~12.2 (매주 화)
 영화속우리이야기: 11.5~12.3(매주 수)
 대상: 청년 / 참가비: 2만 원
 장소: 바오로팔서원 / 19:00~21:00
 문의: 양채사리아수녀, (010)2503-5185

빛 떼제 기도

일시: 11.8(토) 18:00~(식사)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대상: 청년, 청소년, 가족
 신청: (010)9056-9005

2015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분야: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몬테소리대학원 신설)
 접수기간: 11.3(월)~14(금)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660-5512~3(특수)

제45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1.6~2.22(3.5.7주 선택)
 가톨릭계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수업
 대.일반: 1.4~2.15(6주or장기가능)
 주관: 마 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기간: 2015.1.3(토)~2.1(일)(6주)
 장소: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1)207-4982 대상: 초4~중2
<http://blog.naver.com/cficengcamp>

살레시오 겨울신앙학교·복사학교

일시: 홈페이지(www.fmayouth.or.kr)참조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062)373-0942 / (010)8621-0940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의료교수
 ☎ 053)626-8881~5


 본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 정 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애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행사 | 모임

김옥수 신부 전시회·주보성인 타일 조각

기간: 11.3(월)~15(토)

장소: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주최: 교구 성모당담당, (010)3343-8396

대구가톨릭대학교 100주년 동문 교수 초대전

(학교 발전 모금 전시회)

기간: 11.13(목)~12.5(금)

장소: 대구가톨릭대 해양 김종복미술관

문의: 김종복미술관, 859-4000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피정

기간: 11.29(토)~30(일) 1박 2일

장소: 청통수련원

주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참가비: 3만 5천 원

신청마감: 11.19(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5차: 11.21(금)~23(일)

장소: 한티 /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육 | 모집

가창성당 은혜의 밤

일시: 11.4(화) 18:00~22:00

강사: 차동엽 신부

주제: 복음의 기쁨

영남지역 제10차 CPE 세미나

일시: 11.16(일) 9:30~16: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주제: 내면의 아이 치유와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CPE·성바로CPE

문의: 659-3410 / (010)4143-5508

2015 평신도수도자 석박사 학위과정 모집

원서접수: 11.3(월)~14(금)

석사과정: 특수대학원(신학과)-야간

박사과정: 문화영성학과

문의: 대구가톨릭대 남산동, 660-5111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1.15(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강사: 염철호 요한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가톨릭근로자회관 11월 영여성공부반 모집

개강: 11.4(화) 월 3만 원

낮반: 탈출기, 요한(화, 금 10:10)

저녁: 탈출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시편

2015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기간: 11.17(월)~21(금) 9:00~16:30

지원자격: 2008.1.1~12.31사이에

출생한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삼덕유치원 입학설명회

일시: 11.18(화) 10:00

대상: 2015학년도 유치원 입학희망자

문의: 782-9380

기초반 수화교실 개강

일시: 2015.1.4(일)~4.5(일)

매주 일 14:00~16:00

장소: 계산성당

수강료: 3개월 7만원 교재비별도

신청: 청각장애인선교회, (011)809-0447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초·중·고: 1.2~1.30(4주) 선착순

대학: 1차 1.3

2차 2.28(8주 이상)

특징: 여성가족부허가프로그램

수녀님 인솔, 해외봉사활동

문의: 656-6655 / 593-1273(대학)

채용 | 안내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각 본당에 설치된 파란색 현우수거함

에 현우를 넣어서 사랑을 전해주세요.

어려운 이웃과 해외원조지원사업에 쓰여

집니다. 많은 참여와 많은 도움 바랍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가

위령의 날 미사 관계로 없습니다.

광안 사랑의 청정지역 명품 김
이조맛김

김 · 건어물 · 첫갈뽕 판매
성전건립기금 마련 및 비자회
성모회 · 지모회 등 각종 단체 기금모음

전 영 진(바오로) 010-4192-5655
이 경 숙(모니카) 010-4123-5353
053-255-3836

광안신협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교수출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발리)
http://www.ksnose.co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올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헬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4월) / 오이타, 유우인(4월)
※ 출발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조 협 레(유스티노)
(주)성기여행 홈 미 회(안젤라)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동서도로연수원
(방문도로연수)
주행에서 주차까지
100% ^신자우대^
최욱(베드로) 박상우(바오로)
053)766-1888 서현숙(모니카)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교회 · 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 · 중풍 · 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 · 의사 · 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 · 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